

# 양록인의 심리

문종환/한국양록협회 홍보부장

일전에 지방출장을 다녀올 기회가 있었다. 거기에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양록인에게 들은바 있다. 그분은 오랜기간동안 절(寺)에서 역학(易學)을 공부했노라고하며 지금도 관심이 많은 분이라고 했다.

그분의 이야기인 즉슨 왜, 일부 양록인들의 심성이 온순하지 못하고 다소 감정적이고 거칠겠느냐고 반문했다.

평소 생각하지 않은바는 아니지만 갑자기 묻는 질문이어 「글쎄요」하고 말끝을 흐렸다.

그 분의 이야기로는 대부분의 사슴장이 산(山) 밑에 위치해 있고, 사슴도 야생성이 강하다 보니 사슴을 기르는 양록인들 역시 자연적으로 그 기(氣)를 들이받아 야성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야성적인 양록인의 기질은 하루아침에 개선될것 같지 않고 오랫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일면 그런것 같기도 해서 고개를 끄덕였지만, 양록인들 중에는 마음씨가 착하고 남에게 해를 주지 않으려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기에 수궁이 되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았다.

역학적으로 사슴장의 지리적 요인이나 사슴의 생태가 양록인들의 심성을 거칠게 했는지는 모르나 다른 측면에서 양록인들의 심리를 파악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다름아닌 사슴만이 지니고 있는 특수성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이런 특수성이 양록인의 심성을 거칠게 했고 다소 감정적으로 진전되도록 하지 않았는가 생각되어 진다.

주지하다시피 사슴은 처음부터 경제적인 동물로 농가에서 사육되어진게 아니고 사회저명인사나 돈 많은 사람들이 화초(花草)의 일종으로 사육해 왔다.

사슴을 기르는것 자체가 일반 사람들로부터 선망의 대상이었으며 신분상승의 효과를 가져왔다.

같은 가축을 기르면서도 소나 돼지에 비해 사슴은 훨씬 높은 반열에 있었으며 축산으로 한데 묶여지기를 은연중에 터부시 했다. 그러다 보니 사슴은 사치축종으로 각인되어 지금까지도 그 여파는 남아 있다.

양록업의 첫 출발이 좋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정책적으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채 50

여년간을 굳건히 뿌리내리지 못하고 들떠있는 축종으로 남아 오늘에 이른 것이다. 이런 축종이다 보니 그동안 양록업에 뛰어들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지울수 없는 아픔과 금전적인 손해를 주기도 했다.

나아가 정책당국자들로 하여금 「사슴은 이제 사치축종이 아니라 농가들의 주소득원으로 부각되는 차세대 축종임」을 인식시키려 해도 「정말 그러느냐」는 식으로 오히려 의아해 하기도 한다.

특히 화초(花草)의 일종으로 출발한 사슴은 워낙 고가인데다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해 유통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기도 했다. 사슴이 일종의 투기대상이 된것이다. 사슴을 이 농장에서 사서 저 농장으로 옮겨만 주어도 상당한 금액이 만져지기도 했다.

시간이 흐름에따라 사슴숫자가 증가되고 유통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개중에는 농가들을 우롱하는 자들도 없지 않았다. 여기서 부터 사슴사육 농가들의 불신이 싹트기 시작했으며, 유통인들끼리 보이지 않는 비방도 양록인들의 심성을 멍들게 하는데 일조했다.

양록인들의 심성을 거칠게 한 또하나의 요인은 여론 주도층의 단순화와 이론(理論)의 뒷받침이 약하다는데에 있다.

여론 주도층의 단순화는 다시말해 사슴에 대한 학식과 풍부한 경험을 지닌 사람이 드물다는 뜻과 같다. 그러다 보니 사슴을 먼저 알고 길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슴 전체를 모두 아는 것인양 이야기 하고 다녔고, 심지어는 생산자단체(협회)의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양록업계 실정을 제대로 알리었고 정보의 부재속에 갇힌 양록인들에게 몇몇 여론 주도층의 말 한마디는 큰 위력을 발휘하여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편견을 갖도록 하기도 했다.

지금 이런 여론 주도층의 단순화는 양록업 발전을 위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골똘히 생각하고 마음속 깊이 결심하고 있는게 있다.

현재 양록업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든, 연구든 모두가 하나의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진단해 보고 싶은 것이다. 제대로 자리잡아 갈때까지 비판적인 시각에서만 판단하고 이야기하지 말고 일정기간 동안은 조용히 지켜보는 인내심을 가지자는 것이다.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가려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고, 부족한 점을 보충해 가면서 자리를 잡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단, 양록인을 기만하려는 행위에 대해선 만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차단해야 할것을 전제로 한다.

여론을 형성하는데 있어서도 가급적이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간자적 입장에서 지론을 펼칠 수 있는 인물을 발굴해 내고자 한다. 사심(私心)이 앞서고 개인의 감정에 빠져 할 말 못할 말 마구 남발하는 비뚤어진 인물은 배제하고자 한다.

그런 맥락에서 학계나 연구기관에서 묵묵히 사슴공부에 열과 성을 다하는 인물들을 주로 등장시킬 것이다.

양록인들의 심리에 상처를 남기고 양록인의 심성을 거칠게 하는 양록분야의 풍토를 불식시키는데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양록인들 역시 이를 위해 「나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라는 성찰의 시간을 가질때다.

역학적(易學的)으로 양록인의 심성이 너무 착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가 성립될 때 까지  
- . \*